

1994년 『조선영화』 총평



[그림 1] <도시처녀 시집와요>(장유선 시나리오, 김윤 연출,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 제작, 1993)의 한 장면

1994년은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사로 인해 『조선영화』는 9월 이후 총 두 번의 합본호(9~10월, 11~12월)를 낸 채 한 해를 마감했다. 김일성의 사망 이전에 『조선영화』는 주체적 영화예술 발전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며 꽤나 고양되어 있었다. 1월호 사설에서 제기한 영화계에 대한 요구는 이전처럼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전형을 창조’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족과 운명>은 이전처럼 연속해서 제작되어 93년에는 (음악가 윤이상을 모델로 한) 14~16부까지 완성된 상태였다. 민족의 운명이 곧 개인의 운명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한 영화인 <민족과 운명>시리즈는 전반적으로 볼 때 94년에 가장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시기에 나온 <민족과 운명>시리즈는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가인 허정숙을 주인공으로 한 <허정순편>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7월호에 단 한 번 언급된 채 사라져 버려 여타의 <민족과 운명>시리즈와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민족과 운명>시리즈는 비록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다른 주제와 장르의 영화들이 다양하게 등장 소개되고 있다. 1월호 신년 사설인 ‘주체적인 영화예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94년 북한영화예술계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설은 크게 세 가지의 제작방향을 제시한다. 첫째는 낙천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30돐을 맞이하여 농업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를 위한 계급교양주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현실과 미래를 낙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건 ‘영화예술부문에서는 또한 올해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밝은 양상의 아담한 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웅적 노동계급의 전형을 형상한 혁명적이고 락

천적인 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농촌테제 30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이 천명한 농업제일주의방침은 영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완성에 적극 이바지한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김린서, 2월호),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에 대한 예술적 형상-예술영화 <농산기수>에 대하여’(오창봉, 3월호), ‘농촌문제의 중국적 결과 영화예술’(장영, 5월호) 등을 통해 94년 중반기까지 우리 식 사회주의가 현실화된 농촌을 영화로 제시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은 볼 수 있다. 한편 전후 세대를 지나 3, 4세대를 위한 영화를 만들자는 움직임은 93년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이 제작한 <도시 처녀 시집와요>에 대한 많은 평론과 창작방법론 연구에 집약되어 있다. <도시 처녀 시집와요>는 더 나아가 (사회주의농촌) 현실주제영화이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밝은 양상의 아담한 작품’이기에 어떻게 보면 94년 신년호 사설에서 밝힌 영화예술계의 세 가지 방향을 통합시킨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밝은 양상의 낙천적인 사회주의의 미래를 보여주자는 신년 초의 다짐은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조선영화』는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징후를 드러냈다. 가장 커다란 사상적 변화는 ‘주체사실주의’라는 용어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김일성의 사망 이전에 간행된 『조선영화』에는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주체적 영화예술’(리현숙, 3월호), ‘주체성은 우리 식 영화문학의 생명’(김숙, 4월호) 등의 글을 통해 주체적 영화예술 혹은 우리 식 영화예술 등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다가 김일성 사망 이후인 12월호에 ‘주체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본격 미학사상으로 이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박철호는 12월호에 ‘영화예술창작에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자’(47~49쪽)라는 글을 통해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라는 용어를 영화예술 분야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듬해인 1995년 5월호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실주의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빛나는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론을 논한 바 있다. 결국 영화 분야에서 ‘주체사실주의’는 김일성 사후에 새롭게 조성된 예술사상담론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박철호가 천명한 ‘주체사실주의’란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미학적원칙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화예술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린다는 것은 현실을 사람의 리의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 그린다는 것이며 현실의 변화발전과정도 사람의 활동과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보고 그린다는 것을 말한다’ (박철호, 47쪽), ‘영화예술창조에서 주체사실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주체사실주의가 담아야 할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내용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내용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내용, 사람의 제일생명은 정

치적생명이며 사람의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 주체의 혁명관과 인생관, 집단주의적생명관을 세워나가는 내용을 비롯하여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발양시키고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화예술작품에 담아야 할 사회주의적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자주성을 인간과 생활의 본성으로 내세움으로써 우리 시대의 영화예술앞에 나선 역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복무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박철호, 48쪽)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영화의 변화는 『조선영화』의 각호 표지에서 징후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94년 『조선영화』의 표지를 김일성 사망 이전인 1~7월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 <보심록>, <자매들>, <로병의 딸>, <민족과 운명>, <임진왜란>, <고마운 처녀>, <민족과 운명>이었다. 그러다가 8~12월까지 총 3번의 『조선영화』에는 각각 <군인선서>, <젊은 참모장>, <병사는 모교로 돌아왔다>로 군사물주제영화가 매 호 표지를 장식했다. 군인들의 가시성이 갖고 있는 정치학은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김선아